

**고금리 어려움 극복과
신산업 전환을 위한
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**

2024. 2. 15.

금 융 위 원 회

목 차

I. 기업금융현황 분석	1
1. 기업경영환경	1
2. 산업별 자금이용현황	2
3. 기업규모별 금융이용현황	3
II.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	6
1. 신산업 · 혁신성장 · 첨단산업 분야 지원	7
2. 밸류체인 강화 및 산업구조 개선 지원	9
3. 고금리 등 경영애로해소 및 재기지원	13
4. 기업대출 제도 · 인프라 개선	18
III. 추진 일정	19

I. 기업금융 현황 분석

1 기업경영 환경

□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과정에서 고금리·고물가 장기간 지속→ 기업은 매출·영업이익 감소 등 부담 가중

- 물가는 점차 하향 안정세*, 경기는 수출중심으로 회복세 전환*되는 등 위기는 진정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,

* 물가상승률(%): (‘22) 5.1 (‘23) 3.6 **(‘24^e) 2.6** [하반기 이후 2% 중반 안정 전망, 한은]
수출증가율(전년동월비,%) (‘22.12)△9.7 (‘23.6)△6.0 **(‘23.12) +5.0**

- 여전히 금리가* 높고, IT·반도체 등 특정 수출산업에 집중된 업황회복으로 인해 전반적 체감경기는 좋지 않은 상황**

* 은행권 기업대출 금리(% 연도말): **(‘20) 2.84** (‘21) 3.14 (‘22) 5.56 **(‘23) 5.29**

** 기업경기실사지수(숫자가 낮을수록 '경기가 나쁘다'고 응답한 업체가 많음)

(21.6) 98 [中企 88] → (‘22.6) 83 [75] → (‘23.6) 73 [71] → **(‘23.12) 70 [65]**

□ AI·로봇·신소재 등 산업구조 전환과 글로벌 분절화·공급망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 필요

- 생성형 AI 활용이 쏠산업계로 확대되면서 고성능 그래픽 처리장치·반도체 디바이스 구축 등 첨단산업투자수요는 증가*

*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규모(가트너) : (‘23) 534억\$ (‘24^e) 671억\$ (‘27^e) 1,194억\$

- 반면, 중저기술 제조업의 매출·고용은 점차 감소*하는 추세

* 국내 제조업 매출 중 中低기술 산업 비중(%) : **(‘01) 41.3** (‘11) 43.4 **(‘21) 35.8**

국내 제조업 고용 중 中低기술 산업 비중(%) : **(‘01) 50.3** (‘11) 46.9 **(‘21) 44.1**

- 미국·EU 등은 생산기지를 인접국·우방국으로 옮기고(프렌드쇼어링), 중국 外 공급기지 역할 대체지역에 대한 관심 증가*

* 알타시아(Alternative+Asia) : 英 「Economist」는 중국의 대안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한국·일본·대만·싱가포르, 인구가 많은 인도·인니, ASEAN국가(베트남·캄보디아 등) 주목

⇒ ①고금리 등 어려운 거시 경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
②신산업 전환·미래먹거리 확보를 통해 글로벌경쟁력 유지 필요

2 산업별 자금이용 현황

- **(첨단산업)** 시장규모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첨단전략산업은 설비구축 및 R&D 투자수요* 大

* 반도체·의약·전기기기산업 설비투자액(조원) :('19) 52.1 → ('23) 81.8 (+57.0%)

- 대기업을 중심으로 내부유보자금 및 IPO·회사채 등 직접금융 이용도 활발*하지만 대출을 이용한 자금조달**도 크게 증가 중

* 차세대반도체 등 혁신성장품목 직접금융(조원) : ('19) 116.4 → ('23) 183.1(+57.6%)

** 차세대반도체 등 혁신성장품목 신용공여(조원) : ('19) 506.2 → ('23) 815.4(+61.1%)

- **(제조업)** '22년 이후 금리상승에 따라 대출이용 증가율이 감소 → 목적별로는 운영자금을 위한 대출비중이 증가

- 전체 대출에서 전통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*하는 가운데,

* 전체 기업대출 (조원, 연평균증가율): ('19) 1,456.6 → ('23) 2,416.1 (+12.6%)

** 中低기술 업종이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: ('19) 14.5% → ('23) 10.7%

- 용도별로는 금리가 낮았던 '21년중 시설투자가 증가하였다가 금리상승 등 금융애로로 운영자금 비중이 증가*하는 추세

* 제조업 대출 증가액 중 시설자금 : 운영자금의 비중(한국은행)

('20) 35.2 : 64.8 ('21) 85.4 : 14.6 ('22) 39.2 : 60.7 ('23.1~3Q) 34.7 : 65.3

- **(서비스업)** 위기 이후 매출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, 업종별로 매출회복양상에 큰 차이*를 보이고 있음

* 운수·보관업, 도·소매업 등의 매출은 코로나 이전에 대비해 크게 증가(+80%)한 반면 방송·통신, 숙박·음식점 등의 매출·경영상황은 아직 코로나 이전수준 未회복

- 서비스업 모든 업종에서 시설자금 비중*이 증가하는 모습으로 투자를 통한 신산업 진출 수요도 지속하여 존재하는 상황

* 서비스업 시설대출(조원, 전체대출중 비중): ('19) 346.2(47.2%)→('23.3Q)593.0(49.2%)

⇒ 첨단산업에는 수요에 맞는 충분한 자금지원이 필요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·서비스업의 사업구조 고도화 및 고금리 애로 해소도 지속하여 필요

3 기업규모별 금융이용현황

(기업구분)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계
기업수(만개) [†]	0.3	0.6	40.5	41.4
(비중,%)	(0.8%)	(1.3%)	(97.8%)	(100.0%)
매출액(조원) [†]	3,324.2	961.4	2,393.4	6,678.9
(비중,%)	(49.8%)	(14.4%)	(35.8%)	(100.0%)
수출액(억달러) [†]	4,447.4	1,239.9	1,133.4	6,820.7
고용규모(만명) [†]	237.4	158.7	840.3	1,236.4
대출규모(조원)	217.8	255.4	854.9	1,328.1
평균대출액(억원)	2,113.6	589.8	19.4	34.2
차입금평균이자율 [†] (%)	3.25	4.56	3.52	3.38
은행 연체율(%)	0.19	0.41	0.55	0.48

* '23년말기준, †표시는 이용가능한 최신자료

1 첨단전략산업 영위 대기업 : 대규모 설비구축 등 자금수요 大

- 산업·무역 구조의 대전환 과정에서 반도체,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은 대규모 설비 구축* 등에 자금수요가 큰 상황

* 예 : 반도체 Fab 1기당 30조원 이상 소요, 이차전지 10Gwh당 1~1.5조원 소요
→ 반도체, 이차전지, 바이오, 자동차산업의 '30년까지 투자 예상 607.7조원(산은 등)

- 내부유보금 등 활용 가능한 자금이 향후 투자에 필요한 수준에 비해 부족* → 업황부진 지속시 자금압박 심화 가능성

* 기업의 70%는 투자집행에 필요한 자금 규모 대비 현재의 **자금확보 비율이 "60% 미만"** (대한상의, 첨단산업분야 기업 대상 자금사정 조사결과, '23.4월)

- 고금리상황에서 대기업들의 회사채·IPO 등 직접금융 조달도 위축 → 첨단산업의 대규모 수요를 보완할 자금공급 필요

【 대기업 직접금융 조달 추이(조원, 금감원, 코스콤) 】

구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(~11월)
직접금융	20.1	45.8	56.0	80.4	47.3	48.5
(회사채)	14.1	43.3	49.6	56.3	29.1	42.4
(주식)	6.0	2.5	6.4	24.1	16.9	6.2

⇒ 첨단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 및 지속할 수 있도록 금융권이 대규모 혁신투자를 지원할 필요

② 중견기업: 경쟁력 강화 위한 대규모 투자 · 新산업전환 필요

- **(의의)** 중견기업*은 매출규모·고용 등에서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
→ 특히 제조중견기업은 소·부·장 등 우리 산업생태계의 허리

* 기업수 5,576개(1.3%)로 국내 총매출액의 14.4%, 총고용의 12.9%, 수출의 18.2% 차지
→ 제조중견기업(1,989개) 중 소재·부품·장비기업이 86%(1,683개)

- 전기·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중심*으로 매출액 증가가 크고
설비투자 및 신사업진출 소요도 지속 확대*

* 중견기업 업종별 매출액('22, 조원) : (전기장비) 36.3(전년비 43.5%↑) (바이오) 25.3(16.1%↑)

** 중견기업 신사업분야 투자(예상)금액(조원) : ('21) 6.6 ('22) 6.5 ('23^e) 7.2 ('24^e) 7.5

- **(금리 부담)** 다만 전반적으로는 고금리 등으로 경영·재무 여건* 악화

* 이자보상배율(배) : 8.23('17) → 6.22('19) → 6.33('20) → **9.23('21) → 6.68('22)**
한계기업비중(%) : 9.9('18) → 11.3('19) → 12.5('20) → **12.8('21) → 14.1('22)**

- 중견기업이 적용받는 금리는 중소기업보다도 높은 것이 현실*
→ 자금조달 애로사유로 금리상승(70.4%)이 가장 큼

* 차입금평균이자율('22, %, 한은) : (대기업) 3.25 (중견기업) **4.56** (중소기업) 3.52

- 저리 정책자금은 중소·벤처기업 위주로 설계*되어 있거나
첨단·기간산업 중심으로 공급되어 중견기업은 사각지대

* 예: 신보의 보증은 기업당 최대 100억원 한도로 중견기업 자금수요에는 부족

- **(직접금융 제약)** 기술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,
회사채 등 직접금융 이용이 쉽지 않은 환경*에서 지분투자도 미흡

* 공모 회사채 발행 중견기업은 95개 (총 5,589개 중견기업 중 1.7%, '22년)

- 펀드 등을 통한 지분투자는 고위험·고수익의 벤처투자 또는 안정적
상장사(연기금)에 집중되어 중견기업은 충분한 투자를 받기 어려움

- 투자 중견기업은 내부유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(72.4%),
기술개발도 자체개발(61.9%) 방식의 초기발굴 단계(43.9%)

⇒ 중견기업이 고금리를 이겨내고 '혁신산업의 주체'로 기능하도록
①판로·수출길 개척 및 ②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지원 필요

③ 중소기업·원자재·인력난과 함께 고금리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 지속

- **(의의)** 중소기업은 기업수·고용*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
→ 경기회복을 체감하려면 中企의 활력제고가 매우 중요

* 중소기업수는 40.5만개로 전체 기업의 98%, 고용자는 840.3만명

- **(고금리 부담)** 위기 극복과정에서 경기둔화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은 계속 악화*되는 상황

* 중소기업 매출증가율(전년 동기대비, %, IBK 경제연구소)

: ('21말) 8.4 → ('22말) △0.2 → ('23.1Q) △0.9 → ('23.2Q) △5.2 → **(‘23.3Q) △4.3**

- 매출·영업이익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는데
대출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 → 금융비용 부담이 큼*

* 중소기업당 평균 대출규모(신정원): 14.8억원('19년말) → 19.4억원('23년말)

금리 5~7% 비중(신규기준, %) : 3.5('21.12월) → 66.8('22.12월) → **64.6('23.12월)**

- **(위기기업 증가)** 물가가 점차 안정되고, 수출도 일부 회복되는 모습이지만,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상황*

* 중소기업 기업경기실사지수(숫자가 낮을수록 '경기가 나쁘다'고 응답한 업체가 많음)

(21.6) 88 → ('22.6) 75 → ('23.6) 71 → **(23.12) 65**

- 코로나 이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했던 기업들도 여전히 이자
상환에 어려움*을 겪고 연체율도 최근 다시 상승 추세**

* 이자보상비율 1미만 기업비중(%) : ('19.12) 24.0 ('22.12) 28.7 ('23.6) 34.9 **(23.12) 38.4**

**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(% , 은행권) : ('19말)0.44 → **(21말)0.27** → **(23.10월)0.55**

※ 중소기업은 주로 고금리부담 경감, 새로운 사업 진출자금 지원 등을 요청
(23.12.1일 중소기업 간담회 등)

- **(신산업 진출)** '대·중견-중소기업'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의 절대적
비중을 차지하는만큼 신산업전환·확장을 위한 투자도 긴요

⇒ 중소기업의 ①신사업 재편 및 ②금리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한편,
③위기(실패)기업의 재기 및 신속한 정상화도 지원할 필요

II.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

[기본 방향]

□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기업이 처한 경영상황 및 기업규모별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 마련

- ①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초격차·주력산업 영위 기업에 집중 지원하여 산업구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
- ② 국내산업의 밸류체인강화 및 산업구조 개선을 지원하여 우리경제의 단단한 하부구조를 확립
- ③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위기기업에는 신속한 정상화 및 실패 후 재기를 지원
- ④ 은행이 기업금융을 적극지원하도록 제도·인프라 개선

[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요약]

	신산업·혁신성장 첨단산업분야 지원	밸류체인 강화 및 산업구조 개선	경영애로 해소 및 재기지원	지원규모
첨단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공급망 안정기금 운영(수은, 5조원) ▶ 초격차 주력산업 지원(산은, 15조원) ▶ 정책금융기관이 PF방식 자금지원 검토 			20조원
중견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 (5대銀+산은, 6조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중견기업전용펀드 (5대銀, 5조원) ▶ P-CBO(산은·신보, 2조원) ▶ 성장사다리 보증지원 (5대銀·신기보, 2.3조원) 		15.3조원
중소기업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신산업 진출 및 설비투자 확대 등 자금지원 (5대銀 5조원+ 정책금융 16.3조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고금리·고물가 애로해소 (정책금융 12.3조원) ▶ 매출감소 중소기업 금리인하 프로그램 (5대銀·기은, 5조원) ▶ 신속정상화 및 재기지원 (은행권, 기은, 신보, 캠프 2조원) 	40.6조원
지원규모	26조원	30.6조원	19.3조원	75.9조원+@
제도개선 인프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은행이 정부 등이 보조하는 모험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RWA적용 개선, 담보부 미실행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인하 ▶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정보를 "산업별" → "기업별" 로 은행에 제공하여 여신심사 지원 			

※ 총 75.9조원 중 5대 은행은 총 20조원의 프로그램에 참여·지원

1 신산업 · 혁신성장 및 첨단산업 지원 (26조원)

- ☐ 첨단산업 영위기업은 내부유보자금 등을 통해 투자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나 필요자금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
- ⇒ 미래 먹거리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투자를 증가시키는 첨단산업 영위기업에 정부와 은행권이 집중 지원

1 공급망안정기금 (‘24년 5조원)

- ☐ 수입선 다변화·대체기술 개발·국내 유턴기업 및 해외자원 확보 등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(선도사업자* 등)을 집중 지원(기재부, 수은)
- * 경제안보품목의 안정화계획을 소관부처에 제출하여 선정된 사업자
- (지원 규모) 기금채권 발행한도 (‘24년 下 5조원 예정) 범위 내
- (지원 일정) ‘24.6월 ‘공급망기본법’ 시행 예정*
- * 상반기 중 국회 보증동의 전담조직(수은) 및 기금심의회 구성 등 통해 하반기 운용 개시

2 초격차 주력산업 지원 (15조원, 산은)

- ☐ 주력산업 및 신수출 동력산업 중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커 향후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5대 분야*에 지원
- * 반도체, 이차전지, 바이오, 원전, 디스플레이
- (그간 지원 성과) ‘23.2월 출시 이후 연말까지 6.7조원 지원되어 수출 대기업·관계기업의 부담 경감 中
- (지원 내용) 고금리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영위 기업에 대출금리 최대 $\Delta 1.2\%p$ 인하, 총 지원규모 확대
- (지원 규모) 15조원
- (지원 일정) ‘24년중 계속 지원

□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금융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PF방식 자금지원 검토

- (지원 대상) 반도체·이차전지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첨단전략산업 영위 기업
- (지원 구조) 수요기업 등이 SPC를 설립하고 대주단(정책금융기관·민간금융사 등)은 SPC에 자금을 공급하여 설비 투자 진행*

* 자금수요기업과 SPC간 장기공급계약의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대주단 대출 상환

- (지원 내용) 일정한 조건*을 만족하는 경우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사 등이 함께 대주단으로 참여하여 자금을 공급

* ① SPC와 자금수요기업 자금수요기업과 최종 구매기업간의 고정가 기반 장기공급계약이 존재
② 자금수요기업이 SPC에 책임성 있는 참여(일정수준이상 출자, 모회사 보증) 등

③ 신성장 진출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 프로그램(6조원, 시중은행)

※ 5대 은행 5조원 + 산업은행 1조원

□ 신성장 분야로 신규진출·확대 투자를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해 최초로 민간은행 중심의 중견기업 전용 저금리 대출프로그램 마련

- (지원 규모) 산업은행과 5대 은행이 각각 1조원씩 총 6조원
- (지원 대상) 성장잠재력이 높은 9대 테마, 284개 품목으로 구성된 '혁신성장공동기준'에 해당하는 품목 영위 기업을 폭넓게 지원

* 시스템반도체, 경량화소재, 스마트팩토리 등 최신기술, 산업트렌드 및 정부 정책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갱신됨 → 취급은행은 판단가이드를 공유

- 중견기업이 혁신품목을 직접 생산·활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해당 품목 관련 전·후방산업 업체도 이용 가능

- (지원 내용) 기업의 설비투자, R&D자금, 운영자금 등에 대해 업체당 최대 1,500억원*까지 1%p 금리를 우대하여 대출 지원

* 시설자금 최대 1,000억원, 운영자금 최대 500억원

- (출시 시기) 은행별 전산 준비를 거쳐 4.1일 상품 출시(예정)

2 밸류체인 강화 및 산업구조 개선 지원 (30.6조원)

- 핵심산업의 소재·부품·장비를 생산하며 산업구조를 뒷받침하는 중견·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
 - ① 신사업 진출 및 설비확장을 통해 산업의 허리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용펀드 및 저리 대출 프로그램 제공
 - ② 회사채 등 발행지원을 통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
 - ③ 성장 후에도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도록 성장사다리 마련

① 중견기업전용펀드 및 중소기업用 저리대출 프로그램(26.3조원)

※ 5대 은행 프로그램 10조원 + 정책금융기관 16.3조원

가. 중견기업 신산업 지원 전용 펀드

- 중견기업이 신사업 진출을 통해 산업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**최초로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전용펀드를 도입**
 - (주목적 투자대상) 사업재편 및 스케일업, M&A를 추진하는 중견기업 및 예비 중견기업에 펀드규모의 50% 이상 투자

【 중견기업펀드 주목적 투자 대상(안) 】

- 중견기업의 성장자금(시설투자, R&D, M&A 및 해외진출 등) 지원
- 중견기업 성장 후 회수지원(Buy-Out, 기존펀드의 투자자산 인수 등)
- 사업재편 및 새로운 사업 진출, 신기술 도입 등

- (투자 규모) **최대 5조원, 1차로 5,000억원** 규모로 조성*하고 성과에 따라 운영규모 확대

* 5대 시중은행과 성장금융(모펀드 운용사)은 MOU를 통해 (최대)출자 규모를 확약하고 1차로 500억원씩 출자하여 1차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조성

- (조성 계획) '24년 3분기까지 1차 펀드 결성 완료 후 집행

나. 시중은행이 신산업에 진출하는 중소기업 우대

□ 설비투자 확대, 사업재편 및 미래혁신산업 진출을 추진하는 **중소기업을 위해 5대 은행이 우대금리로 대출프로그램 제공**

○ **(대상)** 신산업으로의 사업구조 전환 및 사업확대 등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설비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

* 은행은 자율적으로 지원상품을 신규개발 또는 기존상품에 우대조건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제공

○ **(지원 내용)** 우대금리 적용(프로그램별 금리감면 최대 △1.0%p)

○ **(지원 규모)** 5대 은행이 **각각 1조원씩 총 5조원**

다. 정책금융기관이 성장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우대자금지원

□ 전략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확장, 기술력이 우수한 **중소기업 등에게 우대조건외 정책금융 자금을 제공**

○ **(지원 대상)** '정책금융지원협의회' 선정 5대 전략분야¹⁾ 영위, 12대 국가 전략기술²⁾, 신성장 4.0³⁾ 영위 등 전략산업에 자금 공급

1)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, 미래유망산업, 사업재편, 유니콘 육성 등

2) 반도체·디스플레이, 인공지능, 양자, 첨단모빌리티, 차세대원자력, 바이오, 우주 등

3) 미래기술, 디지털혁신, 전략분야의 초격차 창출 등 미래산업중심 범정부 성장전략

- 또한 재무제표 비중을 낮추고 미래추정 영업 이익 등을 고려한 혁신성·성장성 기반 여신심사를 통해 기술기반 자금공급*

* 매출이 아닌 투자유치금액 기반 보증한도 우대, IBK창공·Start-up NEST 등 창업기업용 종합플랫폼 추천기업에 대한 우대조건 대출 등

○ **(지원 내용)** 우대금리 적용(프로그램별 금리감면 최대 △1.5%p) 및 보증료 감면, 최대 보증비율 우대 등

○ **(규모)** 산은 5.7조, 기은 6.1조, 신보 2.5조, 기보 2조 등 **총 16.3조원**

② 중견기업의 자본시장 등 다양한 자금조달수단 활용 지원(2조원)

가. 첨단·전략산업 자금조달을 위한 P-CBO 발행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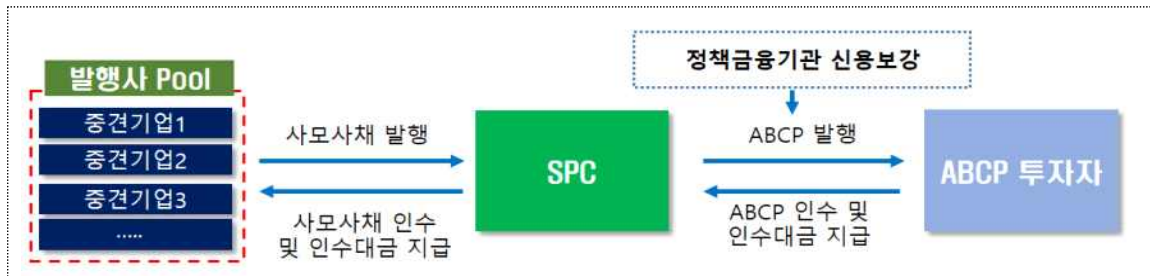
□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견기업의 첨단기술·전략사업 수행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사모사채(P-CBO) 발행 지원

○ (지원 방식) 중견기업이 사모사채를 발행할 때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강 지원

○ (지원 규모) 1.8조원

* 산은 0.3조원 및 신보 1.5조원

【 사모사채 유동화(P-CBO) 구조도 】



※ 외부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신보가 직접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발행금리 인하도 추진(신보법 개정사항)
(평균 연간 $\Delta 0.5\% p$ 비용 인하 기대*)

* P-CBO 편입 기업의 평균 조달액 59억원 → 기업당 평균 연 3,000만원 비용축소

나. 매출채권 유동화(팩토링)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

* 신보(팩터)가 상거래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신청기업에 즉시 자금을 제공하고, 채권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 회수 → 신청기업이 신속하게 유동성을 확보하는 장점

□ 중견기업도 팩토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, 향후 경제상황 및 지원여력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확대*

* 우선 매출액 3,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부터 도입 → 지원대상 점차 확대

○ (지원 규모) 연간 팩토링 지원 1,500억원 중 중견기업 400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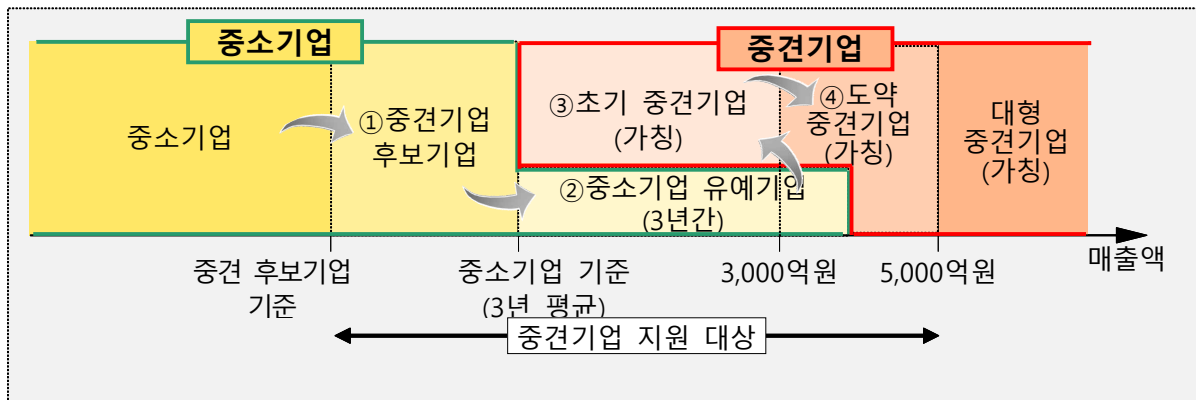
③ 성장단계별 보증지원 프로그램(2.3조원)

※ 5대 은행 1.5조원 + 신보여력 0.5조원

□ 은행의 임의출연을 기반으로 신보가 '중소기업→중견기업' 성장 단계별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성장사다리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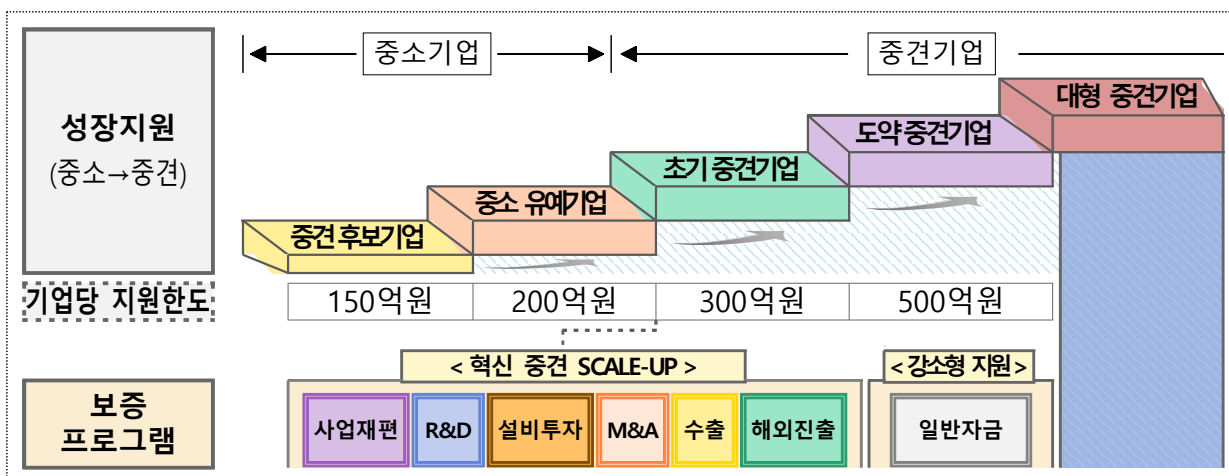
- (지원 대상) 매출액과 도약단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 지원

【중견기업 단계 구분(신용보증기금)】



- (지원 규모) 2.3조원 ⇐ 신보의 보증여력 0.5조원 + 기보 보증 여력 0.3조원 + 5대은행의 신보임의출연을 통한 협약보증 1.5조원
- (지원 내용) 기업당 최대 보증한도를 확대(100억원→최대 500억원) 하여 중견기업도 보증부저리자금을 이용한 투자가 가능
- (출시 시기) '24.상반기 중 시행

【중소-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맞춤형 보증지원(신용보증기금)】



3 고금리 등 경영애로 해소 및 재기 지원 (19.4조원)

□ 중소기업의 전반적 경영상황은 위기 前인 '19년에 비해 악화

【 '19년과 '23년말 중소기업의 경영상황 요약 】



중소기업	2019년		2023년
평균대출액	14.8억원	⇒	19.4억원
평균금리	3.50%		5.31%
분기대출액	26.3억원		29.2억원
대출연체율	0.67%		0.55%
이자보상배율 1미만	26.1%		36.9%
파산신청건수	931		1,509(~11월)

- 실질대출은 하락했으나(대출 11.0% ↑ vs. 생산자물가 16.9% ↑) 금리는 과거에 비해 크게 높음 → 기업경영이 매우 어려운 시기
 - 연체율은 '19년에 비해 다소 낮으나 이자율 수준 감안시 향후 상승 가능성 상존 → 정상화가능기업은 신속한 지원 필요
 - 폐업기업 증가 → 실패경험을 이용한 새출발 지원 필요
- ⇒ 기업의 경영상황에 따라 정상기업 회복·신산업 성장이 가능하도록 단계별 지원프로그램 마련

【 기업의 경영상황 단계별 목표 및 지원방향 】

구분	정상기업	유동성부족	부실기업
경영상황	정상경영 또는 일부 매출하락	일시유동성부족	폐업
목표	고금리·고물가 부담 경감	빠르고 확실한 지원으로 정상화 도모	실패경험이용 재창업 지원
지원방향	① 금리우대 및 금리인하특별프로그램	② 신속금융지원	③ 재기지원보증

기업구분 (유동성 상황)			금리우대 및 금리인하프로그램			신속정상화 지원	
			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	중소기업 금리유예 지원	고금리 고물가 애로해소	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	부실징후 기업지원
			5대銀+기은	기업은행	정책기관	은행권	기은산보캄코
유동성 有	일시매출하락 경험	⇒					
	고금리부담 정상기업	⇒					
일시부족	일시적 유동성부족	⇒					
유동성 低	부실징후 기업(워크아웃)	⇒					
	회생절차	⇒					

*  : 지원대상 요건 충족 시 지원
 : 지원대상 요건 충족 & 경영정상화계획 등 기업의 이력·환경 종합 심사

1 고금리 부담 경감 프로그램(17.3조원)

※ 5대 은행 프로그램 3조원 + 정책금융기관 14.3조원

가. 매출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금리인하 특별프로그램(은행권 공동)

□ 매출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상경영 영위 중소기업에 대해 은행권이 공동으로 금리인하 특별프로그램 마련

- (참여은행) 기업은행(2조원) + 5대 은행(총 3조원) 등 총 5조원
- (지원 대상) 최근 매출하락 등을 경험하여 이자부담이 매우 크지만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정상영업 영위 중소기업(법인)

- 금감원 표준 신용등급체계(10등급 기준) 상 7등급 이상 기업(법인)
- 최근 매출 하락을 경험(1년 전 대비 분기매출 혹은 연매출 하락)
- 이자보상배율 1미만 (단, 3년 연속 1미만인 한계기업은 제외)
- 자본잠식이 아니며 부채비율 400%미만, 영업이익이 양(+)인 정상기업

- (지원 방식) 대상 기업이 보유한 대출금리 5.0% 초과 대출*에 대해 1년간 금리를 5% 까지(최대 2%p 한도)까지 감면

* 정책대출(재정기금대출, 협약대출), 한도여신 등은 제외

- 현재 보유대출에 즉시적용 또는 만기연장 시점에 적용 가능

- (지원 시기) '24.4.1일부터 차주 신청에 따라 즉시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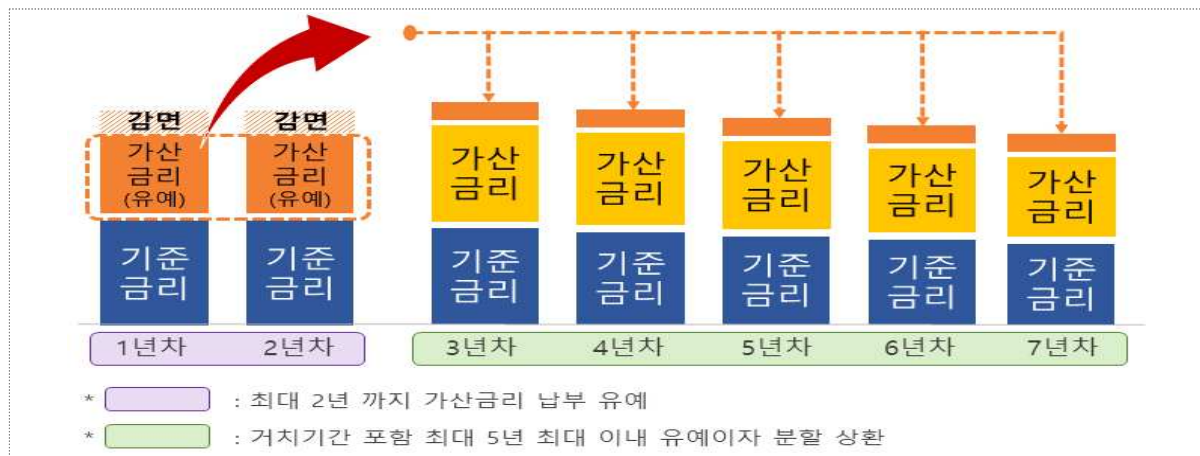
나. 이자상환에 어려움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금리유예 지원(기업은행)

- 고금리 지속으로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2년간 가산금리 일부감면* 및 유예, 5년 이내 분할상환(기은, 1조원)

* 중복적용되지 않는 감면항목을 중복 적용하여 가산금리 감면효과

-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으로 하락했으나 현금흐름이 양(+)이고 재무개선 가능성이 있는 정상기업에게 당장의 금리부담 경감 지원
- 유예기간동안 경영이 개선되면 금리 재산정 주기에 가산금리 인하도 기대할 수 있음

【 중소기업 회복 지원 프로그램(기업은행) 】



다. 정상영업 중인 기업의 고금리·고물가 어려움 해소(11.3조원)

- 높은 금융비용·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우대조건 정책자금 제공(산은 28, 기은 24, 신보 3.1, 기보 1조원)

- 원자재수급차질 피해(우려) 기업, 중장기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장기자금지원, 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등

* 프로그램별 금리감면 최대 $\Delta 1.5\%p$, 보증료 감면 최대 $\Delta 0.5\%p$ 등

- 금리 상황에 따라 매 3개월마다 횡수제한없이 변동 \leftrightarrow 고정금리간 전환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 지속공급(산은 1조원, 기은 1조원)

*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경우 변동금리 수준까지 최대 $\Delta 1.0\%p$ 감면

2 유동성 부족기업: 신속하고 확실한 지원을 통해 정상기업화 (1.7조원)

가. [유동성부족직면] 은행권 공동 신속지원프로그램

- 은행권 공동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에게 **상환유예 및 이자감면** 등을 통해 **신속한 정상화 지원**
 - **(제도개요)** 은행권은 시장상황에 따라 중소기업 여신의 과도한 위축을 막기 위해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 중*('08년~)
 - * 주채권은행의 주기적 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(부실징후가능성)인 경우 지원
 - **(대상확대)** 올해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기업뿐만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'**예상***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
 - * 예) 재평가시 B등급을 받을 것이 유력하다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하는 경우
→ 현재는 A등급이나 전기 대비 매출액이 10%이상 감소, 현금흐름 음수 등
 - **(혜택 강화)** 올해 신청한 기업들에게는 1년간 가산금리를 면제 하여 (현재기준) 3%대 금리를 적용(주요시중은행의 **조달금리수준**)

나. [부실징후기업] 경영정상화 가능기업에 신속정상화 지원

- **구조조정 기업***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정책펀드인 **기업구조혁신펀드(5호) 추가 조성**('24년 1조원, 캄코)
 - * **(사전적 구조조정 기업)**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, 재무안정PEF 투자대상 기업 등
(사후적 구조조정 기업) 회생, 워크아웃, 자율협약에 따른 관리절차 개시 기업
- 부실징후 기업 중 **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***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및 금리인하 기회 제공, 신규자금도 공급(기은 0.5조원, 신보 800억원, 캄코 550억원)
 - * 정책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 가능여부에 대한 평가 후 채무조정·신규자금 지급
- 기업자산 매입 후 재임대*를 통한 유동성 지원시 자산유동화 방식(CLO)을 도입하여 더 많은 자금 공급을 유도(캄코, 800억원)
 - * ①단순 매입(Buy&Hold), ②매입 후 재임대(S&LB)→ 동산에 대해서는 임대료율 인하 등 추진 ③펀드투자(LP)

③ 재창업기업: 성실경영 후 실패경험 기업인* 재창업 지원 (0.3조원)

※ 재창업 기업의 5년 생존율은 73.3%로 전체 창업자 생존율 29.2%에 비해 크게 높음
→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함으로써 전체 산업의 역동성을 강화

가. 채무 변제중인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

- (현황) 회생, 신용회복지원 등 채무조정을 거쳐 신보 채무를 정상
상환 중인 기업 대표가 운영하는 기업에는 신규보증을 제공 중

	'16년	'17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
업체수(개)	12	114	136	126	72	76	61	53

- 다만, 법원 회생절차와 비교해 신복위 신용회복절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창업에 불리
- 회생은 1년 채무상환 시 회생절차 조기 종결*이 가능하나, 신복위 신용회복의 경우 2년이 경과해야만 자금지원 가능

*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는 남아있으나, 신규자금조달·자산처분 등을 법원허가 없이 수행가능

- (개선) 신복위의 신용회복절차를 1년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책임성실효평가를 통과하는 경우 재창업 보증 제공

* 고의부도, 채무면탈 등 위법·부정행위 없이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했는지 평가

나. 신용등급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

- (현황) 기업대표가 보증기관 연대보증이 면제되었더라도 폐업후 신용도 문제 등으로 재창업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

- (개선) 기업을 성실하게 운영했지만(책임경영이행약정*) 어쩔 수 없이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되는 경우 신보가 재창업 자금 지원

* 과거 보증시점에서 기업인과 보증기관은 금융법규·회계처리기준 준수, 횡령·배임·자금유용 금지 등을 이행할 것이라는 약정을 체결 + 사업성 등에 대한 컨설팅 병행제공

⇒ 6개 은행(KB, 신한, 우리, 하나, 농협, 기업)에서 신규 재창업 보증상품을 적극 취급하고, (3년 1,500억원)

- 기존 재창업 프로그램도 확대 공급 (연간 400억원 → 3년 1,500억원)

4 기업대출 제도 및 인프라 개선

1 기업금융 확대를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

□ 은행이 정책성 펀드 등에 출자하는 경우 BIS비율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위험가중치 하향 적용 요건 활용을 활성화

- **(현행)** 은행이 정책성 펀드 등에 출자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*하는 경우 위험가중치를 낮게 적용(400%→100%)할 수 있으나, 은행이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활용도가 낮은 상황

*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[별표3]

① 특정 경제분야의 지원을 목적으로 ② 정부가 투자금액에 대하여 보조하고 ③ 정부의 감독하에 지분율이나 투자지역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법적 절차에 따른 주식

⇒ **(개선)** 은행이 정책성 펀드 출자시 세칙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감독당국의 비조치의견서 접수·처리를 활성화

□ 보증부 분할실행대출 중 미실행금액에 대한 위험가중치 인하

- **(현행)** 보증서 담보 시설대출(한도 약정)은 보증서를 근거로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대출이 실행

- 실행된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0%의 위험가중치를 인정하지만 미실행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50%의 가중치 적용(보증서 미인정)

⇒ **(개선)** 보증승인통지서가 발급된 미실행금액*에 대해서도 보증사 위험가중치(0%)를 적용하여 은행의 기업금융지원여력을 확보

* 약정금 총액에 대해 보증승인통지서 존재 + 보증서발급시에만 인출가능한 구조인 경우

□ 차주 신용등급 결정에 대한 개별은행의 자율성을 보장

- **(현행)** 주채권은행이 아닌 은행은 구조조정희생 기업 등에 대한 차주등급 상향 및 충당금 환입이 주채권은행 결정 이후 이루어져 기업금융 지원여력 확보에 어려움

⇒ **(개선)** 차주등급 상향 및 충당금 환입 결정은 은행 자율로 결정

② 기관간 자료 공유를 통해 은행의 여신심사 효율성 제고

□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기업재무 정보·기술력·매출 등 정보를 (기존) “산업별” 수준 → (개선) “품목별·기업별로 세분화”하여 은행에 제공하여 여신심사 지원

- (현행) 기업금융은 가계대출*과 달리 매출, 영업환경, 기술력, 거래처와의 관계, 시장상황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성장가능성·부실률이 동태적으로 변화

* 신용등급·LTV 등 대출을 위한 기초자료가 표준화되어 있어 취급이 용이

-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
→ 은행은 담보·보증없는 대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

⇒ (개선) 은행은 여신심사시 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 뿐만 아니라 신정원에 집중된 자료*까지 함께 활용하여 대출심사 효율성 제고

* 기업 일반정보, 직·간접시장 차입정보, 거래정보, 기술력, 관계회사, 동일산업내 위상 등(→ 신정원의 기업금융분석시스템(EFAS)을 고도화하여 은행제공)

□ 사업재편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은행이 추천한 사업재편기업 명단을 주기적으로 공유

- (현행)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재편 등을 위해 채권은행이 사업재편기업을 선정·추천하여 혜택*을 제공하는 제도 시행 중

* R&D 자금, 컨설팅 및 세제혜택 등 제공(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, '16년~)
→ 최대 4년간 신용위험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실징후기업 선정에 따른 여신화수 등 방지

- 다만, 은행간 사업재편 지원기업 목록 등이 공유되지 않아 공동지원이 어려운 상황

⇒ (개선) 주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은행권이 추천한 사업재편 승인기업 명단 및 금융지원 실적을 공유하여 은행간 공동지원 유도

Ⅲ. 추진 일정

- 정책금융기관의 프로그램 신설·확대로 가능한 상품은 즉시 공급하여 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
- 은행권의 협조가 필요한 신설 상품의 경우에도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수행하여 기업에 필요자금을 공급

정책 과제	시행주체	시행시기
Ⅰ. 신산업·혁신성장 및 첨단산업 지원		
▶ 공급망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	수출입은행·기재부	'24.하반기
▶ 초격차 주력산업 지원 프로그램	산업은행	계속
▶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PF방식 자금지원 검토	산업은행	개별수요대응
▶ 신산업 진출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 프로그램	5대은행 및 산업은행	'24.4.1일
Ⅱ. 밸류체인 강화 및 산업구조 개선지원		
▶ 중견기업 전용펀드	5대은행	'24.3분기
▶ 시중은행의 신산업 진출 중소기업 우대상품	5대은행	'24.2분기
▶ 정책금융기관의 신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	산은·기은·신보·기보	계속
▶ 중견기업 P-CBO 발행 지원	산업은행, 신용보증기금	'24.2분기
▶ 매출채권 유동화 대상에 중견기업 포함	신용보증기금	'24.2분기
▶ 신보가 직접 P-CBO 발행하여 발행비용절감	신보(신보법 개정)	-
▶ 성장단계별 보증지원프로그램	5대은행 및 신용보증기금	'24.상반기
Ⅲ. 고금리 등 경영애로 해소 및 재기지원		
▶ 고금리·고물가 어려움 해소 지원	5대은행 및 기업은행	'24.4.1일
▶ 중소기업 회복지원 프로그램	기업은행	계속
▶ 중소기업 전용 고금리 부담 경감 프로그램	산은·기은·신보·기보	계속
▶ (유동성부족직면) 은행권 공동 신속지원프로그램	은행권 공동(협약개정)	'24.2분기
▶ (부실징후 기업) 기업구조 혁신펀드(5호) 조성	자산관리공사	'24.하반기
▶ (부실징후 기업) 경영정상화가능기업 자금공급	기은·신보·캠코	계속
▶ (부실징후 기업) 동산 S&LB 도입	자산관리공사	계속
▶ 성실경영 후 실패경험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	신용보증기금	'24.상반기
Ⅳ. 기업대출 제도 및 인프라 개선		
▶ 은행권 펀드출자에 대한 위험가중치 인하적용	금융위·금감원	상반기
▶ 건설사 보증서 담보부 분할실행대출 위험가중치 인하	금융위·금감원	'24.1분기
▶ 차주 신용등급 결정에 대한 개별은행 자율성 보장	금감원	계속
▶ 신정원 기업금융경영분석지원시스템 고도화	신용정보원	'24.1분기
▶ 사업재편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 지원	금감원	'24.1분기